

“무실적출판사 급증하고 있다”

문화부 통계발표... 61%가 무실적, 2백권 이상은 12개사 불과

실적별 출판사 수 증가 추이

('91. 12월 현재)

실적별 (권)	발행연도											
	1977		1980		1988		1989		1990		1991	
	출판 사수	구성비	출판 사수	구성비	출판 사수	구성비	출판 사수	구성비	출판 사수	구성비	출판 사수	구성비
1-5	436	26.7	945	43.5	1,244	28.3	1,386	27.1	1,398	24.6	1,611	24.3
6-10	127	7.8	313	14.4	299	6.8	316	6.2	356	6.2	385	5.8
11-15	78	3.8	164	7.6	168	3.8	152	2.9	166	2.9	169	2.5
16-20	31	1.9	114	5.3	99	2.3	85	1.7	103	1.8	100	1.5
21-30	47	2.9	91	4.2	99	2.3	98	2.0	95	1.7	104	1.5
31-40			64	2.9	52	1.2	55	1.1	60	1.1	45	0.6
41-50	36	2.2	28	1.3	31	0.7	39	0.8	44	0.7	33	0.5
51-100	32	2.0	67	3.1	95	2.2	72	1.4	82	1.4	61	0.9
101-150	6	0.4	22	1.0	37	0.8	30	0.6	31	0.6	13	0.2
151-200	4	0.2	8	0.4	14	0.2	14	0.2	15	0.2	4	0.1
201이상	10	0.6	16	0.7	33	0.7	43	0.8	35	0.7	12	0.4
소계	807	48.5	1,832	84.4	2,171	49.3	2,290	44.8	2,385	41.9	2,537	38.3
무실적 출판사수	824	51.5	338	15.6	2,226	50.7	2,816	55.2	3,319	58.1	4,070	61.7
총출판 사 수	1,631	100.0	2,170	100.0	4,397	100.0	5,106	100.0	5,704	100.0	6,607	100.0

91년말 현재 등록된 출판사는 6천 6백여개사에 이르지만 출판사 이름만 있고 한권의 책도 내지 않은 출판사가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출판가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문화부가 발족 이래 처음으로 펴낸 저서「우리나라의 문화행정」에 의해 밝혀졌다. 이 책에 의하면 지난 1977년 1631개에서 5

년동안 4배가 넘는 출판사가 증가했으며 무실적 출판사도 824개사(51.5%)에서 4070(61.7%)로 늘어나 무실적출판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1991년 실적별 출판사수를 보면 1~5권이 1611개사(24.3%) 6~10권이 385개사(5.8%) 등이며 2백권을 출판사는 12개사(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상적이며 편중된 생

산구조에도 불구하고 1991년도 한해동안의 출판량은 발행종수 2만2770종, 발행부수 1억3천만여부에 달하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 3.9% 증가한 물량이다.

이외에 출판산업의 중앙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발행종수의 97%, 발행부수의 99%가 서울에서 출판되고 있으며 서점도 총 5171개소중 21.8%가 서울에 몰려있다.

한편 국민의 약 61.3%가 연평균 9.5권 정도의 책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서적을 사서 읽는 경우는 1인당 연평균 2.9권으로 여자(2.6권)에 비해 남자(3.3권)가 더 많이 구입해서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당 평균 도서 보유량은 81.1권, 보유율은 91.4%인데 도시지역이 가구당 평균 96.5권, 비도시지역 37.2권으로 도농간의 심한 격차를 보였다.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벌인 불량저속내용 출판물 단속현황을 보면 1991년 한해동안 7만2274권을 압수하고, 633명을 사법조치했으며 위반자 2840명에게 행정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간행물 수입현황을 보면 1991년말 현재 91개 수입업체(도서 74개사, 정기간행물 1개사, 도서·정기간행물 동시수입 16개사)에서 19만8866권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회과학이 4만5057종으로 22.7%를, 자연과학이 26.4%를 차지하고 있다. 수입지역별 점유율은 일본 중국지역이 62.4%를 차지, 가장 많았다. 내용별로 보면 시사성 정기간행물이 124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으며 비시사성 정기간행물이 2022종으로 94.2%를 차지했다. 비시사성 정기간행물 중에는 과학 기술잡지가 548종으로 25.5%를 차지하고, 문화 예술지가 316종으로 14.7%, 여성 패션지가 269종으로 13.8%였다.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출판전문인 양성기관은 현재 개방대학 1개, 전문대학 5개, 대학원 4개 등 10개의 일반교육기관과 그의 단기교육기관이 13개소에 불과해, 열악한 출판교육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행정」은 총404면으로 1부 총설과 2부 주요정책 성과 및 방향으로 나누어 문화행정의 실태와 공과, 미래전망들을 싣고 있다. 특히 90년 문화부 출범 이후 92년까지 문화부가 추진한 문화예술진흥, 국민의 문화향수권시장,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등을 통계자료와 함께 분야별로 기술하고 있다.

저작권심의위 심포지엄 개최

저작권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권)는 12월 12일 양일간 도고파라디스호텔에서 「국제 저작권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저작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위원의 사회로 박춘호 교수(고려대 법학)가 「소련, 중국의 저작권제도와 바람직한 교류방안」을 한승헌 변호사가 「남북 부속합의서 발효에 따른 저작물 상호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간행물윤리위 「서평문화」 7집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가 발행하는 계간지 '서평문화' 제7집이 나왔다. 「인문고전의 현대적 긴요성」(구상) 「고전을 바르게 알리는 좋은 번역」(최근덕) 등 동양고전을 중심으로 한 특집과 문학, 역사, 과학, 경영, 교양 등 18종의 서평을 실었다. 비매품.

전자출판연구회 추계세미나 개최

한국전자출판연구회(회장 이기성)는 지난 11월 25일 오후4시 출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92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기성씨는 「멀티미디어와 한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글자

森林浴

— 숲의 健康法 —
岩崎輝雄 著/辛在萬 譯/값 4,000원

인간의 보건휴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장소로써 역할이 큰 삼림욕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다룬 책이다. 내용은 삼림욕에 대한 개설로 시작하여 5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일본 전국의 삼림욕 명소와 우리나라의 삼림욕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서양과학의 흐름

송 상 용 저/값 5,000원

이 책은 인문계 학생들의 교양과목인 '과학사'의 교과서용으로 저자의 저술 「世界科學史 西洋篇」을 정리한 것이다. 방대한 서양과학의 내용을 모두 24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원시 고대과학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하여 21세기 과학기술의 언급까지, 서양과학의 역사를 알기 쉽게 기술한 개설서이다.

최신환경녹화

龜山 章의 편저/朴容珍·李基誼 譯
값 8,000원

날로 파괴되어 가는 자연환경을 복구하기 위한 최선의 녹화기술을 기술한 책으로 특히 환경을 달리하는 지역 즉 실내, 인공지반, 벽면, 일음지, 담압지, 해안, 호소, 한랭지, 무토양암석지, 특수토양지, 환경오염지 등의 특수상황에 맞는 각종 기법을 기술한 책이다.

동물바이러스학

金 宇 鎬 편저/값 8,000원

이 책은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꾸며진 교재가 없는 바이러스학 부문, 특히 동물(사슴 포함) 바이러스학 분야를 고찰한 것이다. 총론에서는 동물바이러스의 분류 및 형태 등 일반적인 성상과 감염에 의한 현상, 증식과 유전, 유전자조작 등을 기술하고 각론에서는 갖가지 바이러스과의 중요 바이러스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 200-701 춘천시 효자2동 192-1 전화 : (0361) 50-8951 팩시밀리 : (0361) 54-9504

꽃의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글자꼴에 대한 국내 저작권 인정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에 앞서서 "한글의 글자꼴의 표준을 정하고 그에 맞는 글자꼴을 개발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성씨 이외에 박세영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이 「전자도서」 박지호 세광데이터테크이사가 「CD-ROM 이용방법」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인쇄문화사 「인쇄대사전」 간행

인쇄에 관련된 각종 용어를 정리한 「인쇄대사전」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간행돼 일반인에게 시판되고 있다.

인쇄문화사가 88년부터 인쇄관련 학자 및 전문가 등을 동원해 약 5년간의 작업 끝에 내놓은 이 사전은 인쇄에 관련된 용어와 정보 등을 6천8백여개의 항목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사전편찬 과정에서는 교육부 발행 공업고등학교 교과서, 전문대학의 인쇄학과 교재 등 공인된 서적에 수록된 용어를 우선 채용, 인쇄현장에서 여러 갈래로 쓰이는 용어체계의 통일화를 기했다. 한편 이 사전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인쇄작업 현장에 우리말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평문학상에 이관용씨 선정

한국비평문학회(회장 정기조)가 제정한 제1회 한국비평문학상 소설 부문 본상 수상자로 작가 이관용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시간이 없는 정거장」으로 불교관과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 작품이라는 선정 평을 받았다. 작가 이관용씨는 1982년 「겨울

허수아비」를 발표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시상식은 지난 11월14일 출현장에서 열렸다.

한국추리문학대상에 강형원씨

제8회 '한국추리문학대상' 시상식이 7일 하오 3시 종로구 동의동 한국출판문화협회 대강당에서 있었다.

한국추리작가협회 이상우회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서울에 펄땀」으로 대상을 수상한 강형원씨는 "앞으로 더 좋은 작품을 써 추리문학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문화부 '만화문화상' 수상자 시상

문화부가 만화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제정한 '한국만화문화상' 수상자가 지난 11월 16일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한국만화문화상' 수상자로는 저작상 부문에 「공룡나라 우리엄마」를 그린 만화가 박수동씨, 출판상 부문에 학습만화 「세계의 역사」를 출판한 금성출판사가, 공로 부문에 사회복지법인 '사랑의 세계' 이견상회장이 뽑혔다. 이번에 심사된 대상만화는 91년 10월 1일부터 92년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아동 및 청소년만화이다. 시상식은 20일 오후 3시 문화부장관실에서 있었으며 분야별 수상자에게는 문화부장관상 및 부상 1백만원이 수여된다.

현암사 판매이력 환경운동 지원

현암사(대표 조근태)는 환경오염으로 사라져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한 우리꽃과 나비를 컬러사진으로

담은 책과 엽서판매 수익금으로 환경운동을 지원키로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암사는 첫 사업으로 섬말나리 비로용담 금강초롱 등 우리꽃 20종을 컬러사진으로 담은 포스터 1만장을 만들어 전국 8천여 국민학교와 중학교 및 2천개의 공공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

「한국 대학출판부의 실태」 발간

우리나라 대학출판인의 27.7%가 대학출판부의 사회적 위상을 '학술출판의 중요한 공헌자'로 16.5%가

'순수출판문화의 선도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대학출판부의 33.3%가 3.4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황은 한국대학 출판부 협회(회장 김옥환)가 최근 펴낸 「한국대학출판부의 실태」에서 밝혀졌다. 최초의 대학출판부 실태보고서인 이 책은 지난해 말 전국 18개 대학 출판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엮은 것으로 남배순 단국대 출판부과장이 조사연구와 대표집필을 맡았다.

저작권법 손해배상규정 문제 제기

문예학술저작권협, 매절시비 예방책도 제시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개최한 저작권 세미나.

지난 11월 16일 프레젠테이션에서 개최된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의회(회장 김정흠)세미나가 「저작권침해와 법적구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권영상 변호사(매절), 저작권 협의회 연구위원 최현호씨(손해배상) 이연민 서울대교수

(저작권 침해 현황)의 주제발표와 토론순으로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권변호사 등은 주제발표에서 저자와 출판사간의 계약체결시 인쇄등급 대신 원고료 형태로 한번에 미리 지급하는 원고매절 방식에 대한 문

제점을 지적하고, 현행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규정이 표현상의 문제와 내용의 미비때문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문, 연극, 영상, 사진, 컴퓨터 프로그램등에 대한 저작권침해 현황과 이에 대한 침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12월 문화인물에 운동주시인

문화부는 12월의 문화인물로 일제강점기의 대표적 저항문인인 운동주시인(1917~1945)을 선정했다.

운동주시인이 태어난 12월을 맞아 문화부는 그의 생애와 민족에 대한 사랑과 고뇌를 승화시킨 주옥같은 시작품을 널리 알려 그의 민족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문예진흥원, 한국문인협회, 연세문화회 등 관련단체와 함께 각종 기념사업을 펼친다. 기념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운동주의 달 기념 학술발표= 12월중 매주말 중국 연변 용정중학교, 용정중학교 운동주문학창작서클 주관
- ▲운동주의 밤=운동주문학세미나 및 시낭송회, 운동주문학상 시상식, 15일 오후4시 문예진흥원 강당, 한국문인협회 주관
- ▲전국 운동주시낭송대회 및 문학축제=11일 오전 10시부터 해화동 인켈아트홀, 한국시문화회관 주관
- ▲기념강연회 및 시낭송회=11일 오전2시 연세대 인문관 세미나실, 연세문화회 주관
- ▲기념도서전시회=1~31일 국립중앙도서관 전시실
- ▲기념 특별국악공연=15일 오후7시 국립국악원 소극장
- ▲운동주모교 도서지원=12월중 중국 연변 용정중학교, 문화부 어문출판국 주관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

미셸 푸코 저/朴洪圭 譯/값 5,000원

프랑스의 대표적인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저서 「감시와 처벌」을 '감옥의 탄생'이라는 부제로 하여 옮긴 책이다. 제1부 신체형, 제2부 처벌, 제3부 감시, 제4부 감옥으로 나누어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인간 감시와 처벌의 여러 형태를 역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양문학의 배경

R. W 호튼 V F 호퍼 편/ 고양성 역/값 5,000원

이 책은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세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사건들을 간략하게 개관한 것이다. 즉 고전문화와 히브리종교 사상의 원천, 이 양대문화와 중세 고트문화와의 융합과정, 현대 여러 국가들의 복합문화 형성에 이르기까지 서구문명의 원류를 고찰한 책이다.

漢文解釋法研究

崔相翼 저/값 6,000원

이 책은 한문을 쉽게 깊이 이해시킬 목적으로 한문의 구조와 문형을 중심으로 한 문해석법을 체계화한 책이다. 내용은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 제1편 서설에서는 한문의 특성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이어 문법에 대한 설명을 품사론과 통사론적 입장에서 서술했다. 제2편은 한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난점들을 다루고 있다.

조선조 성리학 연구

丁大九 著/값 8,000원

이 책은 네편의 독립된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조선조 성리학의 철학사상을 시대적 순서에 따라 학자별로 검토하고 있다. 조선 초기의 대표적 유학자인 삼봉 정도전과 양촌 권근의 성리학을 비교 검토하며 천인관의 입장에서 유학자들의 사상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추만 정지운의 성리학설을 사단철정설과 연계해서 파악한다.



(우) 200-701 춘천시 효자2동 192-1 전화: (0361) 50-8951 팩시밀리: (0361) 54-9504